

〈심청전〉의 현대적 변용에 관한 비판적 검토

최어진*

- I. 서론
- II. 현대적 변용의 사례들
- III. <심청전>의 현대적 변용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
— <심청전> 재해석의 계보 속에서
- IV.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윤대녕의 소설 <천지간(天地間)>(1997), 이강백의 희곡 <심청>(2016)을 중심으로 <심청전>의 재해석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이 작품들이 원작을 변용하고 있는 방식과 여기에 반영된 시각을 <심청전>의 재해석 계보 속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했다.

윤대녕의 소설 <천지간>과 이강백의 희곡 <심청>에는 고전소설 <심청전>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천지간>은 ‘나’의 가족관계와 과거사, 이에 대한 ‘나’의 감정 등을 통해 <심청전>을 상기시킨다. 무엇보다 이 작품은 <심청가>의 특정 대목의 사설을 직접 인용하는 한편 ‘범피중류’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 ‘물’과 관련된 죽음을 거듭 활용하고 있는 점 등에서 <심청전>과의 관련성을 상정하기에는 무리가 없다. 작품 속 ‘나’는 그가 따라간 ‘그 여자’를 직접 ‘심청’으로 호명하기도 한다. 한편 <심청>에서는 젊은 여성들을 인당수에 제물로 바쳐 온 선주(船主)가 만들어 낸 이야기로 <심청전>이 등장한다. 여기에 더해 주요 대목의 사설을 대사로 거듭 활용하고 있으며, ‘가난’과 ‘팔려가는 딸’ 모티브를 활용

*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해 여성 인물 ‘간난’의 이야기를 만들어냄으로써 원작과의 연관성을 보다 강하게 암시한다.

그런데 이 두 작품에서 심청으로 상상되는 여성 인물은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미성숙하게 형상화된다. 이러한 형상은 원작의 내용을 감안했을 때 개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심청에게 피해자의 형상만을 덧씌우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더욱 큰 문제는 여성 인물들이 수동적으로 형상화될수록 그들의 성(性)은 보다 본격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이 여성 인물들은 남성 인물 혹은 그와의 성(性)적인 관계로 깨달음을 얻거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그려지기까지 한다. 이처럼 여성 인물(심청)을 향한 남성중심적이고 일방적인 시선은 비단 이 두 작품뿐만 아니라, 최인훈의 <달아 달아 밝은 달아>, 황석영의 『심청, 연꽃의 길』, 영화 <마담 뽕덕> 등 <심청전>을 현대적으로 변용한 여러 작품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심청전>의 재해석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나, 어떤 면에서는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반복·재생산 되어온 <심청전>과 심청을 향한 이러한 시선은 원작에 대한 오독과 오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핵심어 : <심청전>, <천지간>, <심청>, 재해석, 현대 콘텐츠

1. 서론

<심청전>의 현대화 및 재해석 작업¹⁾은 채만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채만식은 <심청전>을 총 네 차례나 다시 쓰면서,²⁾ <심청전>의 재해

1) 린다 허친은 ‘각색’을 “잘 알려진 다른 작품 또는 작품들의 공인된 전위, 전유/구원이라는 창조적이고 해석적인 행위, 각색된 텍스트에 대한 확장된 상호텍스트적 참여”(린다 허친, 손종흠 외 옮김, 『각색이론의 모든 것』, 엘피, 2017, 55면)라고 정의했다. 본고에서는 현대화, 변용, 재해석 등의 용어를 린다 허친이 말한 각색의 의미로 사용한다.

2) 희곡 <沈봉사>(1936, 7막 20장)와 <沈봉사>(1947, 『전북공론』, 3막 6장), 그리고 소설 <沈봉사>(1944~1945, 『신시대』 연재 중 중단)와 <沈봉사>(1949, 『협동』 연재 중 중단)이다. 이

석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작가가 되었다. 채만식의 작품과 더불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작품으로 최인훈의 희곡 <달아 달아 밝은 달아>(1978)³⁾와 오태석의 희곡 <심청이는 왜 두 번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가>(1990)⁴⁾, 황석영의 소설 『심청, 연꽃의 길』(2007)⁵⁾ 등이 있다.⁶⁾

비교적 최근작으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단연 임필성 감독의 영화 <마담 뽕덕>(2014)이다. 이 작품은 <심청전>이라는 공동 모티프를 가지고 영화와 소설을 동시에 작업하는 흥미로운 기획으로 시작되었으며,⁷⁾ 백가흠의 소설 『마담 뽕덕』(2014)과 함께 세상에 나왔다. 영화 <마담 뽕덕>은 개봉 전부터 화제 물이에 성공한 듯 보였으나,⁸⁾ 관객 수는 50만 명에 못 미쳤

작품들의 제목이 모두 ‘沈봉사’인 데서 알 수 있듯이, 채만식은 <심청전>을 ‘심봉사전’으로 다시 썼다. 이 네 작품의 관계에 대해서는 홍재범, 『채만식 소설과 희곡의 교섭 양상: <심봉사>의 경우』, 『한국현대문학연구』 62, 한국현대문학회, 2020 참조.

- 3) 최인훈,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어이(최인훈전집 10)』, 문학파지성사, 1979, 249~310면.
- 4) 오태석, 『심청이는 왜 두 번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가』, 서연호·장원재 공편, 『오태석공연대본전집』 10, 연극과인간, 2005, 11~49면.
- 5) 이 작품은 본래 『심청』 1, 2(문학동네, 2003)로 출판되었으나, 2007년에 『심청, 연꽃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합본되어 개정판이 나왔다. 작가의 말에 따르면 작품명에 ‘연꽃의 길’을 넣는 것이 본래 의도였다(황석영, 『개정판을 내면서』, 『심청, 연꽃의 길』, 문학동네, 2007, 694면). 이하에서는 편의상 『심청』으로 부르되, 2007년 개정판을 활용한다.
- 6) 개별 작가의 작가론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심청전>의 계승 및 재해석이라는 관점에서 논의 있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유인순, 『채만식과 최인훈의 희곡작품에 나타난 ‘심청전’의 변용』, 『비교문학』 11, 한국비교문학회, 1986; 김유미, 『판소리 ‘심청가’의 현대적 계승에 대한 일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장혜진, 『<심청전>을 변용한 현대희곡 연구』, 『한국연구학』 7, 한국연구학회, 1995; 박혜령, 『<심청전> 소재 현대 희곡考』, 『외대논총』 18, 부산외국어대학교, 1998; 김현철, 『판소리 <심청가>의 페로디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11, 한국극예술학회, 2000; 신선희, 『<심청전>의 현대적 수용과 변용』, 『고소설연구』 9, 한국고소설학회, 2000; 황혜진, 『전승사의 관점에서 본 <심청사>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구수경, 『‘심청전’의 창조적 변형과 구원의 서사-박상룡의 ‘심청이’와 황석영의 ‘심청, 연꽃의 길’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2-2,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8; 심치열, 『<심청전>의 또 다른 이야기 형상화』, 『돈암어문학』 21, 돈암어문학회, 2008; 광상인, 『<심청전> 페러디를 통한 심청의 ‘자기’ 정립 양상: 고전 <심청전>과 황석영의 <심청>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51,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11; 권순규, 『<심청전>의 연극적 변개와 그 시대적 의미』, 『만교어문연구』 50, 만교어문학회, 2018; 김태웅, 『<심청전>의 현대적 변용을 통한 고전문학교육 연구』, 『문화와 융합』 44-4,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등.
- 7) 백가흠, 『작가의 말』, 『마담 뽕덕』, 네오픽션, 2014, 343면; 전건우, 『‘마담 뽕덕’ 욕망한다, 고로 존재한다』-『마담 뽕덕』, 영화와는 또 다른 질척한 욕망에 관한 이야기』, 『체널에스』 2014.10.17. (<https://ch.yes24.com/Article/View/26446/>) 2023.9.28.

다.9) 이 작품에 대한 대체적인 감상평은 “재해석의 옷을 입었지만 흔한 치정극”¹⁰⁾이라는 리뷰 제목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 영화 <마담 뺱덕>에 대한 학계의 반응은 나쁘지만은 않았다. 이 영화가 <심청전>에서는 미약하게 드러났던 심봉사의 욕망을 본격적으로 서사화하고, 그 욕망으로 뺱덕과 심청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줌으로써 현대판 스피노프 <심청전> 이본을 만들어 냈다가나,¹¹⁾ <심청전>을 지배하고 있던 ‘심청 서사’에 대항하여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스토리텔링의 사회적 실천”¹²⁾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등의 언급은 관객의 평가와는 결을 달리한다. 후반부의 서사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한계가 지적되기도 했으나,¹³⁾ <마담 뺱덕>이 <심청전> 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데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

여기에서 이러한 평가에 대해 반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고전문학이 위축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고전소설을 활용하는 현대의 작업들은 시도만으로도 반가운 면이 있으며, 엄정한 평가가 어떤 이점이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반가움이 다양한 학문적 관심으로 이어지거나 비판적 논의들을 생산해내지 못한다는 데 있어 보인다. 여기에 더해 최인훈의 <달아 달아 밝은 달아>나 황석영의 『심청』 등 저명한 작가의 작품이나 대중적 인기를 얻은 몇 작품에 대한 논의만 집중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 할 만하다. <심청전>의 경우 최근에도 몇몇 시도들을 통

8) ‘마담 뺱덕’ 심봉사 역 정우성 “수컷 본능” 저질한 심학규와 엇비슷한 나이… 지금의 내가 해야 가장 빛날 수 있는 캐릭터”, 『경향신문』 2014.9.24. (https://www.khan.co.kr/culture/movie/article/201409242123275?utm_source=uri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마담 뺱덕’ 정우성 “본능이 살아있는 수컷으로 연기”, 『연합뉴스』 2014.9.29. (<https://www.yna.co.kr/view/AKR20140926149000005?section=search>), ‘확신이 만들어낸 타협 없는 치열한 연기 <마담 뺱덕> 정우성’, 『무비스트』 2014.10.1. (<http://www.movist.com/star3d/read.asp?type=32&id=22560>) 등. 2023.9.28.

9)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https://www.kobis.or.kr/kobis/business/main/main.do>)”에 따르면, 이 영화는 전국 536개관에서 상영하였으며, 누적관객수는 471,169명이다. 2023.9.28.

10) 김현철, ‘재해석의 옷을 입었지만 흔한 치정극’, 『무비스트』 2014.9.25. (<https://www.movist.com/movist3d/read.asp?type=2&type2=1&id=22542>) 2023.9.28.

11) 김태림, 『관소리계 소설 서사 활용 연구—<방자전>과 <마담 뺱덕>을 중심으로』, 『고봉논집』 67,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1.

12) 신호림, 『심청전에 대한 현대적 상상력과 스토리텔링 전략—영화 <마담 뺱덕>(2014)을 대상으로』, 『동양고전연구』 66, 동양고전학회, 2017, 323면.

13) 위의 논문, 320면.

해 새로운 각색물들이 조명되기는 했으나,¹⁴⁾ 고전문학의 현대적 활용이나 재해석 작업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지극히 한정적이다.

시시각각 만들어지는 모든 콘텐츠를 다 다루는 일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다. 다만 흥미로운 콘텐츠를 새롭게 발굴해 내고 본격적인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며 의미화하는 작업이야말로 오늘날 고전문학 연구자에게 요청되는 과업일 것이다. 무엇보다 고전문학 연구자에게는 ‘재해석’의 외피를 입은 채 고전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양산되는 일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대녕의 소설 <천지간(天地間)>(1997)과 이강백의 희곡 <심청>(2016)은 눈에 띈다. 이 작품들은 모두 고전문학 분야에서는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동시대 비평의 현장에서는 <심청전>의 재해석 및 현대적 변용을 탁월하게 성취해 낸 작품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작품들 어디에도 <심청전>의 주요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심청’과 ‘심봉사’, ‘뽕덕어미’ 등은 등장하지 않는다. 기왕의 연구에서 이 작품들이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한 까닭은 짐작컨대 이 점과 관련이 깊을 것이다. 실제로 이 작품들은 <심청전>으로부터 얼마간 떨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청전>을 이해하는 방식이나 작품 속 인물들에 대한 시선 면에서는 주목할 만한 점이 적지 않은데, 특히 이 특징들은 <심청전>의 재해석과 관련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최인훈의 희곡이나 황석영의 소설, 영화 <마담 뽕덕> 등과도 함께 비교해 볼 만하다. 이와 같은 문체의식에서 본고에서는 윤대녕의 <천지간>과 이강백의 <심청>이 <심청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 원작과의 거리를 가늠해 보고, 나아가 <심청전>의 재해석 계보 속에서 이 작품들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도 규명해 보고자 한다.

14) 채만식, 최인훈, 오태석의 희곡, 황석영의 소설, 영화 <마담 뽕덕>과 웹툰 <그녀의 심청>(seri·비완, 2017~2019) 등이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는 최어진, 전기화 등의 논의에서 새로운 콘텐츠가 소개되기도 했다(최어진, 『뽕덕어미』 인물 형상의 재해석과 계승, 『고소설연구』 56, 한국고소설학회, 2013; 전기화, 『고전문학콘텐츠의 새로운 흐름—SF를 통한 고전서사 다시쓰기』, 『한국학논집』 92,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3 참조). 분야별 <심청전>의 재해석과 관련한 연구 목록은 최어진, 같은 논문의 각주 8번에 자세하다.

II. 현대적 변용의 사례들

1. 윤대녕의 <천지간(天地間)>(1997)

윤대녕의 <천지간>(1997)¹⁵⁾은 1996년 4월 『문학사상』에 발표되어 그 해 이상문학상을 받았다. 이 작품은 당시 상당한 인기를 끌었으며,¹⁶⁾ 같은 해 10월 27일 <KBS 신TV문학관>에서 드라마화되기도 했다.¹⁷⁾

이 작품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동침하기까지의 긴 우회 과정”¹⁸⁾을 다룬다. 따라서 핵심 줄거리만 본다면 이 작품과 <심청전>을 관련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이 작품이 끊임없이 <심청전>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우선적으로는 작품 속에 <심청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나’는 광주로 문상을 가던 길에 갑작스럽게 마주친 한 여인을 따라 완도 구계등(九階燈)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는 한 무리의 소리꾼들이 소리 공부를 하러 와 있었다. 그들이 연습하던 소리가 바로 <심청가>이다.

따라간다 따라간다 선인들을 따라간다. 끌리는 초맛자락 거듬거듬 걷어 안고 비같이 흐르는 눈물 옷깃에 모두가 사무친다. 었더지며 자빠지며 천방지축 따라 갈 제 건넛마을 바라보며 이 진사택 작은아가 작년 오월 단오일에 앵두 따고 놀던 일을 니가 행여 잊었느냐. 금년 칠월 칠석야의 함께 걸교하자더니 이제 나는 하릴없다. 상침질 수놓기를 뉘와 함께 하자느냐. (중략)

-
- 15) 윤대녕, 『천지간(天地間)』, 『문학사상』 1996년 4월호. 여기에서는 『1997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사, 23~61면에 실린 것을 대상으로 했다. 이하 인용문의 각주는 생략하고 본문에 면수만 밝힌다.
- 16) ‘이상문학상 수상 『천지간』 종합순위 2위로 급부상’, 『동아일보』 1996.05.30.,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newslibrary.naver.com). 2023.10.11.
- 17) 원작 윤대녕·극본 이화자, 박진수 연출, 심은하·김상중 외 주연. 이 작품은 현재 ‘옛날티비:KBS Archive’ 채널에서 제공되고 있어 전체를 감상할 수 있다. (https://youtu.be/2ps_lz1qtD0?si=S09Me6x8kGTCkt1V) 2023.10.11. 드라마 <천지간>은 소설에서 모호하게 처리된 부분들을 분명하게 해석해 보여준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언급하기로 한다.
- 18) 채명식, 『윤대녕의 <천지간> 분석—그날 그 여자를 따라간 문상 부장 남자의 석연치 않은 변명에 대하여』, 『한국문학연구』 22,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0, 287면. 다만 채명식은 표면상 그러할 뿐이고, 서술 방식상의 특수성 때문에 동침이 갖는 “진부하고도 세속적인 의미가 무화”(287면)된다고 덧붙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는 이 견해에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이 작품이 주제를 형성하는 데 있어 <심청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한정해 논의하고, 제3장에서 이어서 상론하기로 한다.

……물노라, 저 꾀꼬리, 뉘를 이별하였는디 환우성지지 울고 뜻밖의 두견이는
귀촉도 귀촉도 불여귀라 가지 위에 앉아 울건마는, 값은 받고 팔린 몸이 어느 때
나 돌아오리. (55면)

작품 속에 인용된 위의 대목은 <심청가>에서 심청이 인당수로 가기 위
해 고향 집을 떠나는 장면이다. ‘나’는 완도의 여관에 머물면서 소리꾼들이
이 대목부터 ‘범피중류(泛彼中流)’를 부르고, 이어서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데까지 부르는 것을 듣는다. 범피중류나 투신 대목은 직접 사실이
인용되지는 않는다. 범피중류는 작품의 말미에 한 번 더 언급된다.

이 외에도 이 작품에는 <심청전>을 환기하는 중요한 모티프들이 산재해
있다. 소설의 첫머리에서 ‘나’는 외숙모의 부음을 듣고 문상을 가는 길이었
는데, 굳이 검은 양복 차림으로 광주까지 내려가려는 것은 외숙에게 “빛 감
정”(24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 ‘빛 감정’이란, ‘나가 대학에 합격했
을 때, 그리고 군에서 제대했을 때 외숙이 “쌀 한 가마니씩을 화물 열차에
실어 보내” 온 데 기인한다(24면). 외숙은 “쌀이라는 것을 무슨 제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했다.”(24면)는 ‘나’의 언급은, 아버지가 빚진 ‘쌀’
공양미 삼백석 때문에 ‘제물’로 팔려 갔던 심청의 이야기를 상기시킨다. 여
기에 더해 ‘나’는 아홉 살 무렵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29면)
그런데 그때 ‘나’를 구하기 위해 한 친구가 강으로 뛰어들었다가 죽고 말았
다. 익사(溺死)와 대속(代贖)의 상상력 역시 <심청전>과 관련되어 있다. 또
한 ‘나가’ 여성을 따라 도착해 머문 곳이 몇 해 전 “장님”(45면) 노파가 머
물다가 자살한 곳이라는 점, ‘나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심청가>를 부르며
소리 공부를 하던 어린 여자 소리꾼 한 명이 또다시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점 등도 의미심장하다.¹⁹⁾

다시 <천지간>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나가’ 문상을 가지 않고 생면
부지의 “그 여자”(25면)를 따라가게 되는 것은 그의 얼굴에서 “산[生] 죽

19) 소설에서는 소리꾼이 죽게 된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데, 드라마에서는 해석을 덧붙여 보여
준다. <심청가>의 인당수 투신 대목을 연습하던 어린 소리꾼에게 그 스승이 ‘물에 빠져 죽
어야 되는데 그렇게 소리를 해서 되겠느냐’며 다그치고, ‘정 못 부르겠거든 한 번 뛰어 들어
가 물을 퍽어보라’고 까지 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때 소리꾼은 아무 말 없이 눈물
을 흘린다.

음”(28면)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때 굳이 ‘나’의 죽다 살아난 경험이 회상되는 것은, 그것이 마치 갇아야 할 ‘빛’처럼 느껴지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나’는 여성이 곧 자살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자신에게는 목숨과 관련한 빛이 있으므로 그의 죽음을 말리기 위해 따라간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 작품을 관통하고 있는 정서는 바로 ‘빛 감정’이다.

따라서 ‘나’는 시종일관 여자가 과연 ‘자살할 것인가’ 전전긍긍하며 그를 관찰한다. “상여를 따라가듯”(31면) 여성을 쫓아간 ‘나’는 그의 옆방에 머물면서, 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바닷가를 헤매다가 돌아오기도 한다. 여성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그가 죽었다고 여기고—여관으로 돌아올 때 들려오던 소리가 바로 범피중류다. 이후 여성이 ‘나’의 방을 찾아오고, 소리꾼들이 <심청가>에서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을 부르는 것을 들은 뒤, 두 사람은 동침한다.

범피중류, 나는 여자의 몸 위에서 아득한 현기증을 느끼며 마치 물 한가운데로 떠가는 듯하다가 뇌가 하얗게 비어 버릴 찰나 용암 같은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 순간 왜 느닷없이 감성돔 회 빛깔이 떠올랐던 것일까. 그 미묘한 백색이 말이다.

나는 여자의 배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잠꼬대라도 하듯이 뭐라 뭐라 웅얼거리고 있었다. 여자는 내 손끝을 쥐고 사이사이 환숨을 내쉬며 내 말에 대꾸하기도 했다. 나는 심청이와 인당수 밑에 누워 두런거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다가 나는 손금에 걸린 달을 보며 잠이 들었다. (58면)

이 동침의 자리에서 ‘나’는 언제 물에 빠져 죽을지 몰라 걱정하던 그 여성을 ‘심청’이라고 호명한다. ‘나’의 말에 따르면, 여성은 임신을 했고 완도에는 죽으러 온 것이었으나 “자신의 전생을 지우기 위해 나와의 관계를 원했”(59면)다. 그리고 관계가 끝난 후, “아이는 살리되 아이의 아버지께서는 놓여날 수 있었다고 중얼거리며 내 팔 안에서 깊이 잠이 들었”(59면)다. ‘나’가 <공양미> “300석을 이불 속에서” 주었으므로 “임신 4개월의 심청이”가 살아 돌아갈 수 있었다는 해석이나,²⁰⁾ 여자의 입장에서 낯선 남성과의

20) 김윤식, 『공양미 300석 주고받기론』, 『김윤식의 소설 현장비평』, 문학사상사, 1997, 140~141면.

관계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제의”²¹⁾였다는 해석은 바로 이 부분에 근거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나’가 ‘외숙’이 보내준 ‘쌀’ 때문에 ‘빛 감정’을 느끼고 살고 있다는 점은 나 역시 심청과 관련이 있음을 강력하게 암시한다.²²⁾ 이 작품에서 어머니는 아주 짧게 언급되지만,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에게 실질적인 아버지는 외숙일 것이다. 외숙이 ‘나’의 삶의 중요한 대목에서 ‘제물’ 같은 ‘쌀’로 어버이 역할을 한 점이 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아버지가 없는 ‘나’에게 외숙이 베푼 사랑과 호의는 그저 ‘빛’으로 남아 있다. 그가 문상을 끝내 가지 않은 것은 바로 그것이 사랑이나 은혜가 아니라 ‘빛’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심청전>에서 심청은 모친이 자신을 낳고 칠 일 만에 산후별증으로 죽었으니, 모친의 목숨과 자신의 삶을 바꿨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여기에 더해 앞 못 보는 아버의 헌신과 사랑으로 힘들게 목숨을 부지했으므로 부친에게도 부채감을 가졌음 직하다. 이것이 <천지간>이 <심청전>을 상상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다. 이 점은 심청이와 비슷한 처지의 ‘나’가 ‘빛 감정’을 느끼며 사는 것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 <심청전>에서 심청은 부친의 보살핌을 사랑과 헌신으로 이해했기에 인당수로 떠난다. 심청의 투신에서 “죽을 고생을 하며 자신을 키워낸 눈먼 아비에 대한 인간적 정리”²³⁾를 읽어내야 한다는 주장은 바로 이 점에 착목한 결과다. <천지간>에 흐르는 ‘빛 감정’은 <심청전>에서 심청이 지녔을 법한 감정과는 결이 다르다.

또한 심청이 범피종류 대목에서 그랬듯,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건너는 듯 느끼는 인물은 여성 인물이 아니라 ‘나’인 점도 주목해 볼 만하다. ‘나’는 분명 심청을 상기시킨다. 여기에 더해 작품에는 물에 빠져 죽은 인물들이 여럿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두 어떤 면에서 심청을 환기시킨다.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나’, ‘나’가 뒤따라간 그 여자, ‘나’를 대신해 물에 빠져 죽은 친

21) 남정희, 『윤대녕 소설과 신화적 상상력』, 『우리문학연구』 16, 우리문화회, 2003, 331면 각주 19번.

22) 김윤식 역시 이 작품에서 ‘나’도 심청이라고 보았다(김윤식, 앞의 글, 138면).

23) 정출현, 『<심청전>의 민중정서와 그 형상화 방식』, 최동현·유영대 편,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7, 332면.

구, 완도의 바닷가에서 죽은 소리꾼과 장님 등은 모두 ‘심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제명에 살지 못했거나, 어쩌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인물들이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 소설은 바로 심청이들의 이야기가 된다.²⁴⁾

그렇다면 그간 <천지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범피중류 대목이 핵심으로 거론된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²⁵⁾ 소장팔경이라고도 불리는 범피중류 대목은 약간의 변이가 있긴 하지만 오늘날 소리판에서 불리는 모든 <심청가>에서 보이며, 진양조로 시작된다.²⁶⁾ <천지간>에서 “중모리가 아니리에서 다시 진양조로 넘어가고 있었다.”(56면)라고 한 것은 바로 범피중류 대목이 시작되는 것을 이른다. 이 대목은 중국의 역대 유명한 시인들의 한시의 구절들을 빌려와서 강 위의 풍경을 묘사하는 내용의 전반부와, 아황과 여영, 오자서와 초희왕, 굴원 등이 직접 ‘심소저(심청)’를 부르며 말을 거는 후반부로 나누어진다. ‘굴삼려(굴원) 어복충훈’, ‘망국한(亡國恨)’, ‘이비한(二妃恨)’과 ‘황릉묘’ 등의 가사가 슬픔과 회한의 정서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이 대목이 <심청전>의 서사와 필연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노래는 <수궁가>나 <숙영낭자전> 등에서도 보이기 때문이다.²⁷⁾

24) ‘나’를 구하려다 대신 죽은 친구가 ‘심청’이라면, 이때 ‘나’는 심봉사 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에피소드는 소설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으므로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김윤식은 “공양미를 26세의 임신한 심청이에게 되돌려준 ‘나’이기에 ‘나’는 ‘장남’이 되어 ‘끼이끼이’ 길을 짚어 세상으로 돌아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김윤식, 앞의 글, 144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는 ‘나’가 ‘심청’이면서 동시에 ‘심봉사’라고 본 결과일 것이다.

25) 김윤식은 “모든 것이 ‘범피중류’의 한 점에 집약된 형국”(김윤식, 앞의 글, 142면)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피중류 대목과 <천지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범피중류’란, 인당수와는 전혀 무관하며 또한 효도와도 전혀 무관한 것. 더구나 연꽃 속의 환생설화와는 인연이 없는 것”(같은 글, 142면)이라면서 이 대목이 『시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데 방점을 두고 해석하였다.

26) <심청가>의 범피중류 대목의 형성 과정 및 변이 등에 대해서는 김석배, 『심청가의 ‘범피중류(泛彼中流)’ 연구』, 『문화와 융합』 14, 문학과학어연구회, 1993; 박일용, 『심청가 ‘강상 풍경’ 대목의 변이 양상과 그 의미』, 『국문학연구』 2, 국문학회, 1998; 김상훈, 『심청가 ‘범피중류’ 대목의 형성과 갈래 간 교섭 및 작품변모사적 의미』, 『판소리연구』 36, 판소리학회, 2013 등 참조.

27) <수궁가>에서 소장팔경(전반부)은 자라가 토끼를 데리고 수궁으로 들어가는 장면엔, 혼령 대목(후반부)은 육지로 돌아오는 장면엔 수용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석배, 『<수궁가>의 ‘범피중류’ 연구』, 『문화와 언어』 15, 문학과학어연구회, 1994에 자세히 다. <숙영낭자전>이나 <봉산탈춤> 등의 삽입가요에 수용된 양상에 대해서는 김상훈, 위의 논문 참조.

다만 후반부에서 심청에게 직접 말을 거는 아황과 여영, 오자서와 굴원 등의 죽음은 모두 ‘몰’과 관련이 있어서 심청의 죽음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특히 이들이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는 장면은 제명을 다 살아내지 못한 심청의 삶에 대한 은유로 읽힌다. 요컨대 <심청가>에서 범피종류는 (억울한) 죽음‘들’의 노래이다.

따라서 범피종류 대목이 이 작품에 반복적으로 언급된 것을 두고 ‘재생’이나 ‘다시 살아남’을 연관시키는 것²⁸⁾은 비약처럼 느껴지는 면이 있다. 실제로 범피종류 어디에도 심청이 살아 돌아와 왕후가 되고 아비의 눈을 띄울 것이라는 암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이 대목이 <심청전>의 ‘비극적 송고미’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것이다.²⁹⁾ 물론 <심청전> 전체 서사를 감안한다면 그렇게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대목이 반드시 있어야 심청이 죽고, 그래야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가 여성이 떠난 뒤 “섬뜩함”(58면)을 느끼고 “몸서리를 치”(58면)는 장면이나, 이후 “장님처럼 껴끼어”(61면) 그곳을 나오는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여성이 전생을 지우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다는 ‘나’의 전언에 의심이 생겨난다. 더욱이 앞서 외숙은 ‘나’의 혼인 때가 되면 또 다시 쌀을 올리겠다고 예고한 적이 있으므로, 아마 ‘나’의 ‘빛 감정’은 앞으로도 해결되지 못한 채 크기를 키워 지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심청이들은 끝내 환생하지 못하리라는 비극적인 인식을 드러내기 위해 범피종류가 인용되었다고 보는 편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심청전>의 세계에서와 달리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도 다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28) 정호웅은 “(전략) 그러니까 <심청가>의 범피종류 그 물질 그 출렁임은 슬픔과 한의 출렁임 이면서 동시에 다시 살아남을 가능케 하는 생명의 출렁임이기도 한 것이다. <천지간>의 ‘범피종류’ 한가운데 빛나는 백색은 죽음의 색(빛)이면서 동시에 다시 살아남의 색(빛)이니 이 점에서 <심청가>의 ‘범피종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죽음을 생각했던 여인은 과거를 지우고 새 삶의 길로 다시 나서게 되는데 과거와 새 삶의 길 사이에서 빛나는 것도 그녀의 앞길을 비추는 것도 그 백색인 것이다(정호웅, 『비범한 상상력으로 그려 낸 백색의 미학』, 『문학사상』 1996년 6월호, 74면).”라고 말하기도 했다

29) 박일용, 앞의 논문, 11면.

2. 이강백의 <심청>(2016)

이강백의 희곡 <심청>(2016)³⁰⁾은 심봉사나 심청 등 원작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고전소설 <심청전>이 중요한 사물로 등장한다.³¹⁾ 작품의 주요 인물은 선주(船主)와 그의 세 아들, 그리고 박간난이다. 선주는 아홉 척의 배를 소유하고 중국과 무역을 하며 재산을 축적해 온 사람으로, 이제 70세 노인이 되었다. 그는 교역의 과정에서 뱃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젊은 여성을 인당수의 제물로 바쳐 왔는데, 그들을 강제로 바다로 밀어 떨어뜨리면 뱃사람들의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심청전>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투신하도록 하는 데 써왔다. 그러니까 그는 <심청전>의 작가이다.³²⁾ 17세의 여성 박간난은 작품 속 현재,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배에 탄 인물이다. 등장인물들은 모두 간난을 ‘마마’로 부르며 수라를 대접하는 등 그를 극진히 모신다. 이것이 간난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호사이다. 그런데 갑자기 간난이 곡기도 끊은 채 투신을 거부하고, 선주의 세 아들이 다투어 그를 설득하기 시작한다. 이 작품은 바로 이 설득의 과정을 다룬다.

이 작품이 <심청전>과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사실은 앞서 말했듯 작품 속에 <심청전>이 직접 등장하고, 나아가 아들들과 선주의 입을 통해 <심청전>의 주요 대목이 대사로 읊어지는 점을 통해 선명히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 대사로 활용되는 <심청전>의 대목은 심청의 용궁 생활과 언뜻 환생 대목, 행선 전야 모친의 묘소를 찾아가 우는 대목, 인당수 투신 대목 등이다.

여기에 더해, <심청>에는 <심청전> 서사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30) 이강백, 『심청』, 『이강백 희곡전집』 9, 평민사, 2022, 121~180면. 이 작품은 2016년 4월 7일부터 5월 22일까지 총 47회 공연되었다고 한다(우수진, 『이강백의 <심청> 연극제작과정 연구—드라마터지 작업을 토대로—』, 『한국극예술연구』 54, 한국극예술학회, 2016, 75면).

31) 백두산, 『후계의 불안과 자기희생의 문제: 연극 <심청>에 나타나는 이강백의 것 과 이수인의 것』, 『공연과이론』 2017년 봄호, 232면. 백두산은 이강백의 <심청>에서 심청은 책 오브제로 등장하는 『심청전』이라면서, 이 작품이 ‘후계 불안’을 다룬다고 보았기에 <심청전>과 내용적인 면에서 갖는 관련성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32) 백두산은 <심청전>이 목적이 분명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설정을 통해 원작의 아우라를 벗겨내고 있다고 보았고(백두산, 앞의 글, 232면), 김미도 역시 이러한 작품의 설정이 매우 신선하다고 했다.(김미도,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혹은 초월 <심청>』, 『연극평론』 81, 2016 여름호, 42면).

설정들이 등장한다. 바로 ‘가난’과 ‘팔려가는 딸’ 모티프이다. 선주는 오랜 기간 젊은 여성을 “공양미 삼백석”, 적게는 “걸보리 스무 가마”(143면) 정도에 사다가 인당수 제물로 바쳐왔다.

간난 나는 아버가 밭소! 매정하게도 보리 스무 가마에 나를 팔았어! 그 보리 스무 가마, 어떻게 할 건지 난 알아! 배고픈 식구들은 굶게 두고, 주막집에 맡겨 밤낮 술 퍼마실 거야! (중략)

간난 걱정 마오. 나는 먹는 날보다 굶은 날이 더 많았소. 흉년에 양식 떨어지면 한 달도 굶었고, 두 달도 굶었소. (후략) (137~139면)

현재 배에 타고 있는 간난의 예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듯, 이 여성들은 대체로 ‘가난’과 돈을 밝히는 악덕한 ‘아버지’ 때문에 혈값에 팔려 왔다.

고전소설 <심청전>의 기층을 이루고 있는 갈등 상황은 ‘심봉사의 안맹’과 ‘가난’이다. <심청전>은 심봉사가 가난하지 않거나 맹인이 아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상황을 다루기 때문이다.³³⁾ 그런데 가난이나 안맹의 상황 자체가 심청을 인당수로 몰아낸 것은 아니다. <심청전>의 전반부에는 심봉사가 부인을 잃고 홀로 남은 뒤에도 심청을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며 정성으로 길러내는 부분이 매우 절절하게 그려진다. 앞을 못 보는 심봉사로서 아이를 길러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따라서 <심청전>을 읽은 사람이라면 심봉사가 심청을 아끼고 사랑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결코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심봉사는 분명 눈을 뜨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가세를 돌아보지 않고 덜컥 시주 약속을 해버리는 데다가 어린 딸이 인당수의 제물로 떠나갈 때도 끝내 말리지 못한다. 그러나 자신의 순간적인 욕심이 스스로와 심청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처절하게 깨닫고 오열하기도 한다. 한편 심청 역시 자신을 힘들게 길러낸 아버지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원했을 것이다. <심청전>의 주제에 관해 아직도 논란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들을 하나로 통합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33) 최어진, 「<심청가> 결말부 변이와 주제의 다층적 지향」, 『판소리연구』 54, 판소리학회, 2022, 239면.

그런데 <심청> 속 간난의 부친은 무능력하고 탐욕적이며, 보리 스무 가마와 간난의 생명을 바꾼 비정한 인물이다. 그는 그냥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도 간난은 “내가 아버지 용서했소!”(169면)라는 한마디 말로 그를 용서한다. 이 용서에 대해 “선주 용서하느라 아버지도 용서하였소!”(169면)라는 대사로 설명해 보지만, 이렇듯 갑작스럽고 진지함이 결여된 용서가 원작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을 매우 사소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심청>에서는 원작의 중요한 서사적 갈등 상황을 다루고자 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 이 작품은 간난 부녀를 선명한 선악 구도 속에 자리하게 함으로써 ‘간난’이 지닌 희생양으로서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만드는 전략을 취한다.

심봉사에 해당하는 간난의 부친이 존재감이 없는 대신, <심청>에서는 선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아들들이 나름대로 간난을 설득하는 사이사이에 선주와 간난, 선주와 고수, 선주와 경리 등의 대화가 삽입되어 있다. 이 대화가 지속되는 사이 선주는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의 시간을 깨닫는 한편, 지금까지의 행동에 대해 회한을 느낀다. 그는 간난을 극진히 모시며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생자필멸(生者必滅)].”(138면)라고 말하며 자발적 투신을 부추기기도 하지만, 아들들이 감언이설로 간난을 기만하고 있음을 말하며 간난을 혼돈 속에 빠뜨리기도 한다. “마마의 아버지는 마마를 팔았고, 소인은 마마를 샀”(109면)다면서 모두가 비슷한 인간임을 고백하기도 한다. 그러다 결국 선주는 자신의 배에서 일하는 경리에게 간난을 데리고 도망치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간난은 결국 인당수에 빠지기 위해 (다른) 배를 타고 떠난다. 간난이 타고 있는 배가 인당수에 도착하기도 전에 선주가 죽음을 맞이하며 작품은 끝난다.

표면적으로 이 작품은 인당수에 투신을 종용하는 선주와 세 아들이 등장해 간난이 물에 빠지기만을 기다리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간난의 인당수 투신 여부가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작품이 간난의 투신 여부에 관심이 없다는 점은 간난이 인당수에 빠지기 전에 작품이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 실제 갈등은 경제적 이익과 인간적 정리 사이에서 번뇌하는 선주의 내면에서 발견된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선주의 내면에 대한 것이다.³⁴⁾

이강백은 한 언론을 통해 이 작품에 대해 “제물을 많이 바쳤다고 영원히 살 수는 없다. 제물과 제물을 바치는 자에게 죽음은 공평하게 찾아온다. 관객들은 바로 그 장면을 보게 될 것”³⁵⁾이라고 말했다. 이 작품은 나쁜 짓을 일삼아 온 한 인간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일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그리고 그도 끝내는 죽게 된다는 매우 자명한 삶의 진실을 담고 있다. 그런데 선주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친 후에도 간난은 왜 끝내 인당수를 향해 가야만 하는가?³⁶⁾ 선주는 투신을 결심한 심청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저 “마마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죽고 싶습니다.”(177면)라는 말만 무력하게 늘어놓을 뿐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심청의 인당수행을 끝내 말리지 못했던 심봉사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심봉사는 자신의 공양미 시주 약속이 터무니없는 욕심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지만,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개안을 향한 아버지의 욕망을 눈치챈 심청은 그것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인당수로 떠난다. 심봉사는 당시로서는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 심청의 의지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이다. 다만 인당수로 떠나려는 심청과 심봉사가 남경 선인들 앞에서 제법 격렬하게 갈등을 벌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선주는 너무 순순히 심청의 인당수행을 받아들인다. 선주는 심봉사와는 다르다.

심청이 어떤 마음으로 인당수에 가기로 결정했는가 혹은 이때 심봉사가 어떤 반응이었는가 등과 무관하게, 죽음 앞에서 심청은 두려움에 떨었다. 인당수로 떠나기 전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흐느끼던 심청은 인당수에 도착해서도 울음을 터뜨리며 몇 번씩 주저앉는다. 바다에 빠지기가 무서웠기 때문이다. 심청은 죽고 싶지 않았다. 인당수로 끌려왔던 많은 ‘마마’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34) 백두산은 이 작품을 선주를 중심으로 한 서사라고 보았고(백두산, 앞의 글, 232면), 김미도 역시 후반부에서는 죽음에 대한 선주의 내면적 갈등이 주축을 이룬다고 보았다(김미도, 앞의 글, 42면).

35) ‘죽음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심청가…이강백 작가 ‘심청’ 재공연’, 『연합뉴스』 2017.03.04. (<https://www.yna.co.kr/view/AKR20170303170300005?input=1195m>) 2023.10.14.

36) 이 결말에 대해서는 백두산과 김미도 역시 의아함을 표했다(백두산, 앞의 글, 233면; 김미도, 앞의 글, 41면). 김미도는 이에 대해 “심청이 효성 이데올로기에 의해 희생되었다면 간난은 모성 이데올로기에 의해 희생되는 셈”(김미도, 앞의 글, 42면)이라고 결론지었으나, 간난이 모성 때문에 인당수행을 결심했다고 볼 근거가 작품 속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선주 (뿔마루에 걸터앉는다) 소인은 자식들이 하는 말을 듣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마마들이 바다에서 울지 않고 뛰어내린 줄 알았는데, 소인이 엄격해서 울지 못하고 뛰어내린 것이더군요. 마마…… 울지 않는 것과 울지 못한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제야 그것을 알게 되다니,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마마, 소인의 자식들은 소인이 마마를 살리려 한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마마는 소인의 마지막 마마입니다. 소인은 마지막 마마를…… 바다에 억지로 뛰어 내리도록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소인도 죽음이 등 떠밀 때, 울지는 않을 것입니다. (157면)

<심청>은 투신을 거부하는 간난의 이야기를 통해서, 심청의 죽음이 쉬운 선택이 아니었으리라는 점을 재차 확인시킨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이 과정에서 전경화되는 것은 심청의 죽음이 아니라 선주의 죽음이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生者必滅]’ 혹은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진실을 담기 위해, 이 작품에서는 ‘간난’의 죽음과 선주의 죽음을 동질적으로 취급한다. 두 사람의 죽음은 작품에 드러나바, 결코 같아질 수 없는 데도 말이다. 이 작품이 심청의 이야기가 될 수 없는 점은 너무도 자명하다.

III. <심청전>의 현대적 변용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

— <심청전> 재해석의 계보 속에서

지금까지 윤대녕의 소설 <천지간>과 이강백의 희곡 <심청>이 고전소설 <심청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심청전>의 서사나 인물형상, 그리고 <심청전> 해석의 지평을 감안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두 작품은 고전소설 <심청전>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원작과 관련을 맺는 방식이나 그 정도는 상이하다.

각색작들이 원작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소모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³⁷⁾ 그러나 각색이 원작에 대한 상당한 오독

37) 이와 관련하여 린다 허천은 각색 작품이 각색된 작품과 맺고 있는 관계, 즉 각색자와 “원작과의 근접 정도”에 대한 논쟁이 “차용이나 교차나 변화이나, 유비나 주석이나 전위나. 원

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거나, 혹은 원작에 대한 오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 유념하면서, 여기에서는 본고에서 살펴본 작품들이 <심청전>을 현대적으로 변용하는 과정에서 보인 몇 가지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해 성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 작품들에서 보이는 일련의 문제점은 <심청전>의 재해석의 계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최인훈의 <달아 달아 밝은 달아>(1978), 황석영의 『심청』(2007), 영화 <마담 뽁뽁>(2014) 등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언급한 작품들의 시간적인 상거가 상당하며, 장르 또한 모두 상이한데도 말이다.

가장 먼저 심청으로 상상되는 핵심 여성 인물들이 수동적으로 형상화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고전소설 <심청전>에서 심청은 부친을 위해 죽음을 결심하는, 일견 자기파괴적인 면모를 보이는 인물이지만, 주체성을 상실한 채 타자의 삶을 사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거듭 강조했듯이 심청의 인당수행은 자신을 어렵게 키워낸 아버지에 대한 “인간적인 정리”³⁸⁾가 그 바탕에 있었고,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중대한 결정을 오로지 ‘홀로’ 감행했다.

물론 심청이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다면 <심청전>의 이야기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심청은 쌀 삼백석의 대가를 받고 ‘팔려’ 갔다. 그런 면에서 심청의 인당수행을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여성에게 가해졌던 억압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주장³⁹⁾은 이 이야기의 핵심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의 결과다. 다만 심청을 둘러싸고 있었던 유교적 가족주의의 억압적 구조만을 드러내려다 보면, 필연적으로 심청에게는 ‘피해자’로서의 형상만이 남는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전통시대 여성들이 억압과 부조리 속에서 답답하게 살아왔으리라는 편견 속에서 그들의 삶을 바라본다. 그러나 관련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듯이, 그들이 완전히 수동적인 타자였던 것만은 아니다. 심청이 온전히 자발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버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부장제의 억압만으로 그의 선택을 다 설명할 수도 없다.

천 텍스트를 원자료로 활용했으나 오직 핵심 서사 구조만 재해석했느냐 글자 그대로 번역했느냐” 같은 쟁점을 다룬다면, 여기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된다 허천, 앞의 책, 52면).

38) 정출현, 앞의 논문, 332면.

39) 최동현, 『<심청전>의 주제에 대하여』, 최동현·유영대 편, 앞의 책, 391~416면.

<심청전> 해석의 난점은 바로 여기에서 기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작품들 속에서 심청을 상징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타인에게 이끌려 살거나, 혹은 그 의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미성숙한 인물로 그려진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삶의 해답을 타인에게서 찾는다.⁴⁰⁾ 이는 <천지간>에서는 잠깐 만나고 헤어진 남성의 아이를 임신 한 채 완도에서 ‘표류’하고 있는 여성의 형상으로 구체화된다. 물론 이 ‘표류’의 이미지는 남성 인물에 의해 구축된 것이다. 더욱이 이 여성은 아이를 갖게 한 남성과의 인연을 ‘전생’으로 표현하며, 그 전생을 지우는 방법으로 자살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찰나의 인연으로 자신을 따라온 남성과의 성관계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말한다. 이 여성은 당연하게도 작품 속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은 채, 마치 풍경의 일부마냥 객체화되어 나타난다. 그가 이름을 얻지 못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그 여성이 원했기 때문에’, 남성 인물은 여성과 동침을 통해 그를 구원해 낸다.

이강백의 <심청>에서 간난은 세상의 이치라고는 전혀 알지 못하는, 실제로 나이 또한 어린 미성숙한 여성으로 그려진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일만 남은 선주와 극명한 대조 속에서, 이 여성은 아직 인생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인물로 형상화된다. 그는 그저 곡기를 끊는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뿐이다. 아버지의 횡포로 배에 오를 때, 그는 자신의 이름 석 자도 쓸 수 없었다. 배 위에서 그는 한글을 배우고 자신의 이름을 비로소 쓸 수 있게 되지만, 끝내는 인당수 투신을 결정하고 만다. 이 과정에서 모성 이데올로기가 작동했다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⁴¹⁾ 이것은 지나치게 친절한 해석이다. 이 작품은 ‘간난’이 자신이 왜 죽

40) 심청을 상상하는 이러한 방식은 <천지간> 속 남성 인물인 ‘나’를 심청으로 보았을 때에도 유효하다. 그는 외숙모의 문상을 가던 길에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이끌려 표류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이 행동에 대해 설명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자신의 목숨과 관련한 ‘빛 감정’을 해소하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미성숙하게 그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감정의 해소를 ‘그 여성’을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는 점 등도 그가 의존적인 존재임을 드러내 주는 장치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심청전>의 재해석 계보와 관련하여, 특히 ‘여성 인물’을 형상화하는 방식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논의하고자 한 것이므로 상세히 다루지는 않았다.

어야 하는지 이유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신을 결심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수동적인 피해자로서 심청의 형상만을 강화시킨다.

이런 면에서 최인훈의 <달아 달아 밝은 달아>(이하 <달아 달아>)는 <심청전>의 현대적 재해석의 계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달아 달아>는 심봉사, 심청, 뽕덕어미 등을 그대로 등장시켜 심봉사가 공양미 삼백석 시주를 약속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 작품의 핵심 갈등은 심봉사가 그 공양미 삼백석 마련을 위해 심청을 색주가에 팔아버리는 데서 비롯되는데, 뽕덕어미가 이 인신매매를 주선한다. 특징적인 것은 이 작품에서 주도적이라고 할 만한 인물은 뽕덕어미뿐이라는 점이다. 심봉사는 무력하게 뽕덕어미의 계략에 동조하며, 심청은 일의 내막도 선명히 알지 못한 채(혹은 알고도 하지 않은 채) 배에 오른다.⁴²⁾ 그렇게 팔려 간 이후 심청의 삶은 처참하게 망가진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대단히 문제적인데, 바로 이러한 설정이 ‘물화’된 심청의 신체를 강조하는 한편 희생양으로서 그의 형상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고 논의되어 왔다.⁴³⁾ 이 작품 속 오브제로 등장하는 ‘인형’은 의심의 여지 없이 심청의 수동성과 피해자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장치다. 인형이 잔혹하게 짓밟히는 장면에서 집단적이고 남성적인 폭력이 선명하게 그 실체를 드러낼수록 심청은 처참한 피해자로 남을 뿐이다. 이후 <심청전>을 변용한 현대의 거의 모든 콘텐츠들은 바로 이 <달아 달아>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여성 인물이 수동적이 될수록 그의 ‘성’(性)은 좀 더 본격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데 있다.⁴⁴⁾ <천지간>에서 여성 인물은 자신의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으로 ‘나’와의 성관계를 원했다(고 ‘나’가 말한다). 이 작품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작품 속에 ‘나’는 이 작품 속 사건들에 대해 끊임없이 “성욕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해명

41) 김미도, 앞의 글, 42면.

42) 황석영의 『심청』도 비슷한 설정에서 출발한다. 심청은 영문도 모른 채 남경 상인들에게 팔려가며 그들에 의해 이름을 잃는다. 그는 “내가 심청이 아니라면 그럼 나는 누구야?”(11면)라고 묻기도 한다.

43) 사진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의 구조와 의미—패로디 구조와 ‘희생양’의 의미—, 『한국극 예술연구』 4, 한국극예술학회, 1995; 김현철, 앞의 논문; 권순궁, 앞의 논문 등.

44) 이 점은 뽕덕어미를 재해석한 몇몇 콘텐츠에서도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최어진, 앞의 논문, 121~122면 참조.

하고 싶어 한다.”⁴⁵⁾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과연 작품의 폐부를 관통하는 설 명이다. ‘나’는 ‘표류하는 듯 보이는’ 여성 인물을 따라다니면서 시종일관 자신의 입장에서 여성 인물의 삶을 추측하고 판단하며, 강박적으로 그녀의 행보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리고 끝내 그와 동침을 한다. 이 작품의 진정한 성취는 ‘동침’을 통해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은 여성이 아니라 ‘나’였다는 점을 폭로해 버린다는 데 있을 것이다.⁴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나’가 여성과 동침함으로써 여성을 구원했다는 착각 속에서 끝이 난다.⁴⁷⁾

이강백의 <심청>에서는 노골적으로 성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선주가 경리에게 간난과 함께 도망가도록 제안하는 장면은 주목해 볼 만하다.

선주 날랜 제주마를 타고 아주 멀리 가게. 바다의 반대면, 멀리 멀리 가서, 마마와 부부 되어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게나. 내가 그 살림 밑천은 넉넉히 준비했네.
(중략)

선주 마마는 참 매력 있지. 심지가 굳고, 지혜롭고, 어여쁘네, 총명하고 성실한 자네와 잘 어울리는 한 쌍일세.

경리 (선주에게 읊하어) 선주님……솔직히 말씀 드리지요. 저 역시……마마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중략)

선주 경리에게 화난 것 아닐세. 야반도주를 못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났네. (술을 마신다.) 야반도주를 처음 생각한 건 젊은 때였네. 그때 만난 마마가……작은 몸매에 큰 눈망울이……꼭 어린 송아지 같았어. 도살장의 백정도 그런 송아지는 차마 죽이지 못해 돌려보낼 것 같고……. (172~173면)

갑자기 간난을 놓아주어야겠다고 생각한 선주는 함께 일하는 경리에게 간난을 데리고 도망쳐 ‘부부’가 되라고 말한다. 선주의 황당한 제안에 경리

45) 채명식, 앞의 논문, 200면.

46) 최영자 역시 ‘내’가 ‘그 여자’를 따라다니는 것은 결국 “‘그 여자’의 응시 속에 사로잡히고 싶은 ‘나의’ 전도된 욕망이 표출된 것”임을 지적하였다(최영자, 『윤대녕 소설에 나타난 환영적 메커니즘』, 『현대문학의 연구』 44,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449면).

47) 작품에 대한 많은 비평들에서도 이 ‘구원’은 실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는 실은 자신도 간난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경리는 자신의 일을 더욱 사랑하기에 간난과 도망치지는 않겠다고 말한다. 그런 경리를 보며 선주는 자신이 젊었을 때 또 다른 ‘마마’와 사랑에 빠졌던 경험에 대해 회상한다. 그냥 간난을 놓아주거나 혼자 도망가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경리에게 간난을 데리고 도망쳐 ‘부부’가 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장면은 인당수에 끌려온 간난에게 남성 인물의 성적 상대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여성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다. 그러니까 간난은 경리를 충분히 매료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 나갈 기회도 갖지 못한다. 선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마마)의 ‘작은 몸매와 큰 눈망울’을 회상한다. 간난이 혼자 도망칠 능력조차 없는 여성으로 여겨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심청전>의 재해석 과정에서 여성 인물들의 성(性)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현상은 <달아 달아>, 『심청』, <마담 뽕덕> 등에서는 더욱 극단적인 설정으로 나타난다. 바로 심청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것이다. 황석영의 『심청』에서 심청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것을 두고 일찍이 서영채는 <심청전>에서 “신화적 장치”를 뺀 결과라고 말했다.⁴⁸⁾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심청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유일한 재화인 신체자본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고, 매춘이라는 험한 길을 가야 했”⁴⁹⁾으리라는 것이다. 심청을 성매매에 연루시키는 방식은 거의 예외 없이 성(性)에 대한 불필요한 묘사와 서술로 이어진다. 이토록 친절한 해설자로서도 『심청』에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심청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묘사에 대해서는 달리 포장할 말을 찾지 못했는지, 그것이 “서사의 표면에 뚫린 구멍”⁵⁰⁾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만큼 『심청』은 과도하리만치 심청의 성에 집착한다. 이 작품에서 심청의 몸은 “관음증적 응시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서사의 재료”⁵¹⁾로 기능한다는 견해는 도무지 부정할 방

48) “난징의 장사꾼들에게 팔려간 심청은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옥황상제나 용궁 같은, 대중을 위한 신화적 장치를 배제하고 따져보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 또한 자명할 것이다. 채무노예가 된 19세기의 소녀가, 인신공회의 제물이 아니라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하지 않은가.”(서영채, 『장녀 심청과 세 개의 진혼제—황석영의 『심청』 읽기』, 『문학의 윤리』, 문학동네, 2005, 177면)

49) 위의 책, 179면.

50) 위의 책, 194면.

51) 박숙자, 『여성의 몸을 탐하는 남성의 서사: 황석영의 『심청』과 김영하의 『검은꽃』』, 『여성과

법이 없다.

이는 영화 <마담 뺱덕>에서 반복된다. 물론 이 영화의 핵심 인물은 뺱덕어미이므로 좀 더 섬세한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덕이와 심청의 성(性)이 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주요 재료가 된다는 점에서 앞선 작품들과 일맥상통한다. 청이가 유흥가로 팔려가는 설정이 반복되는 점만 보더라도 <마담 뺱덕>이 <달아 달아>, 『심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마담 뺱덕>의 경우, 이 영화가 개봉 전 취한 마케팅 전략만을 보더라도 이러한 설정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의심을 받기에는 충분해 보인다.⁵²⁾ 당시 임필성 감독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주 익숙한 고전적인 ‘심청전’ 속 심봉사와 뺱덕어미 이야기를 성인동화로 만들려고 노력했다.”⁵³⁾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성인의 동화’라는 형용 모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대체 그것은 왜 반드시 이러한 방식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답을 하지 않았다. 이렇듯 심청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현대 콘텐츠 속에서 남성 인물의 ‘성적 대상’으로 전락한다. <심청전>의 내용과 ‘성(性) 매매’ 사이에는 어떠한 필연적 고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작품들은 심청을 상징하는 여성 인물이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상상력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도 동질적이다. 언급한 대부분의 작품에서 여성 인물(심청)은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도 특유의 ‘순수성’을 잃지 않는 존재이며,⁵⁴⁾ 절망적인 상황에서 만난 남성 인물에 의해, 혹은 그와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선행 연구에서 <달아 달아> 속 심청의 정신 세계에 대해 “육체가 훼손되면 훼손될수록, 피폐하면 피폐할수록 더욱 그 찬란한

사회》 16, 한국어성연구소, 2005, 223면. 박숙자는 『심청』이 남성의 판타지가 생산해낸 상상적 허구에 불과하다면서 그런 면에서 <심청전>의 서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으나, 『심청』의 해석에는 동의하더라도 <심청전>의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52) “정우성 전주 목격담” 이솜과 17살차 19금 베드신 펼친다, 『동아일보』 2014.03.12.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40312/61643884/1>); “정우성-이솜, ‘마담뺱덕’서 ‘19금 불륜 베드신’ 선보인다”, 『매일경제』 2014.03.12. (<https://www.mk.co.kr/star/movies/view/2014/03/390693/>) 등. 2023.10.19.

53) ‘임필성 감독 “‘마담뺱덕’은 19금 심청전 버전”’, 『서울신문』 2014.09.02. (<https://stv.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902500305>) 2023.10.19.

54) 김현철, 앞의 논문, 330면. 김현철은 최인훈의 <달아 달아>에 나타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심청이 지닌 전통적 이미지를 유지한 결과라고 보았으나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빛을 받는다.”⁵⁵⁾라고 했던 현상은 언급한 모든 작품에서 거의 유사하게 반복된다. 말하자면 이 작품들에서 여성의 내면과 외면은 분리된 채 상상되는 것이다.⁵⁶⁾ 여성의 신체와 의식을 분리하는 이러한 행위야말로 남성적이라는 데에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심청전>의 재해석 작업이 특히 남성 작가(감독 포함)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

<심청전>을 재해석한 현대의 콘텐츠가 반드시 <심청전>의 여러 설정을 그대로 재현해야 할 필요는 없다. 원작의 그저 그런 되풀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이 반드시 필요하리라는 것도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그러나 수십 년간 이루어진 재해석 작업을 돌아보았을 때, 결국 몇 가지의 방식만이 포착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점을 ‘새로운 상상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심청전>은 결코 단순한 작품이 아니다. <심청전>의 현대적 변용 과정에서 이 점이 좀 더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윤대녕의 소설 <천지간>과 이강백의 희곡 <심청>을 중심으로 <심청전>의 재해석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상의 작품들은 <심청전>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등장하지는 않으나,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원작의 여러 설정과 인물들을 상기시킨다. 그런데 이 두 작품에서 심청으로 상상되는 여성 인물들이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미성숙하게 그려지는 점이나, 이들의 성(性)이 불필요하게 집중 조명되고 있다는 점 등은 분명 문제적이다. 이와 같은 심청을 향한 남성중심적이고 일방적인 시선은 비단 이 두 작품뿐만 아니라, 최인훈의 <달아 달아 밝은 달아>, 황석영의 『심청』, 임필성 감독의 <마담 뺱덕> 등에서도 공히 확인된다. <심청전>의 현대적 변용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원작에 대한 오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55) 유정숙, 『최인훈의 희곡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연구: 여성성의 재현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27, 우리어문학회, 2006, 460면.

56) 박숙자, 앞의 논문, 226~227면.

할 만하다.

<심청전>에는 가부장제 하에서 살아가는 여성적 삶의 질곡뿐 아니라 심봉사의 장애인이자 한부모로서의 삶의 애환, 절대적 빈곤의 상황에 고통받는 부녀의 형상 등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다. 예컨대 심봉사는 순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공양미 삼백석에 딸이 팔려갈 때 ‘무정한 장사꾼들’이라며 소리치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만, 작품의 말미에 끝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린다. 심봉사는 자신의 부인과 딸이 죽어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분명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본능적인 애정으로 봉건적인 가부장제의 모순을 느끼고”⁵⁷⁾ 있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채만식이 작품의 리얼리티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심봉사가 스스로의 눈을 찌르는 결말을 택한 점은 좀 더 흥미해 볼 가치가 있다. 이 장면은 매우 짧게 처리되어 있어서 작품 속 갈등이 온전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데, 바로 이 때문에 개연성이 떨어진다고거나 ‘일본 신파극’식 결말이라며 가혹한 평가를 받기도 했을 것이다.⁵⁸⁾ 그러나 그토록 개안을 원했던 심봉사가 스스로 그것을 거부한다는 설정이야말로 <심청전>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심봉사의 고통스러웠던 삶에 주목한 결과임에는 틀림없다. 심봉사가 딸을 팔아 팔자를 고치려 했던 무자비한 아버지가 아니라면, 심청 역시 속수무책으로 팔려간 미성숙한 희생양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작품의 선악 구도를 분명히 하고, 극단적인 설정을 사용하는 것은 현대의 대중문화가 수용자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 취하는 하나의 전략일 것이다. 그러한 극명한 대비 속에서 전달되는 심오한 주제가 마땅히 있을 법도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심청전>에 담긴 복잡다기한 갈등 상황이 그저 무력한 여성의 이야기, 성(性)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심청전>의 현대적인 변용이 반가우면서도 내심 우려스러운 까닭이다. <심청전>과 <심청전>의 현대적 변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57) 최동현, 앞의 논문, 413면.

58) 김현철은 “결말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심봉사의 자해 행위는 깊은 갈등과 고뇌를 드러내기보다는 관객들에게 일종의 헤프닝과 같은 충격을 주는 것”에 그친다고 보았고(김현철, 앞의 논문, 201면), 정출현은 “그리스 비극의 어설론 모방과 천박한 일본 신파극의 범새가 질게 풍긴다.”고 혹평했다(정출현, 『근대전환기, 고전서사 전통의 이월과 갱신: 채만식의 『심청전』 개작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6, 민족문학사학회, 2018, 33면).

참고문헌

1. 자료

- 백가흠, 『마담 뽕덕』, 네오픽션, 2014.
- 오태석, 『심청은 왜 두 번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가』, 서연호·장원재 공편, 『오태석 공연대본전집』 10, 연극과인간, 2005, 11~49면.
- 윤대녕, 『천지간(天地間)』, 『문학사상』 1996년 4월호.(『1997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사, 1996, 23~61면).
- 이강백, 『심청』, 『이강백 희곡전집』 9, 평민사, 2022, 121~180면.
- 채만식, 『沈淪』(1936), 『채만식전집』 9, 창작과비평사, 1989, 28~101면.
- 최인훈,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옛날 옛적에 휘어어 휘이(최인훈전집 10)』, 문학과지성사, 1979, 249~310면.
- 황석영, 『심청, 연꽃의 길』, 문학동네, 2007.
- 임필성 감독, <마담 뽕덕>, 2014.
- 유튜브 ‘옛날티비: KBS Archive’ 채널, “[신TV문학관] 천지간 | KBS 961027방송”(https://youtu.be/2ps_lzqtD0?si=S09Me6x8kGTCkt1V)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https://www.kobis.or.kr/kobis/business/main/main.do)”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newslibrary.naver.com)
-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무비스트』, 『서울신문』, 『연합뉴스』

2. 단행본

- 김윤식, 『김윤식의 소설 현장비평』, 문학사상사, 1997.
- 서영채, 『문학의 윤리』, 문학동네, 2005.
- 최동현·유영대 편,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7.
- 린다 허친, 김상구 외 옮김, 『페로디 이론』, 문예출판사, 1992.
- 린다 허친, 손종흠 외 옮김, 『각색이론의 모든 것』, 엘피, 2017.

3. 논문

- 곽상인, 『<심청전> 패러디를 통한 심청의 ‘자기’ 정립 양상: 고전 <심청전>과 황석영의 <심청>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51,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11, 99~126면.
- 구수경, 『『심청전』의 창조적 변형과 구원의 서사-박상룡의 『심청이』와 황석영의 『심청, 연꽃의 길』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2-2, 한국문학이론과비

- 평학회, 2008, 211~235면.
- 권순공, 「<심청전>의 연극적 변개와 그 시대적 의미」, 『반교어문연구』 50, 반교어문학회, 2018, 41~184면.
- 김미도,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혹은 초월 <심청>」, 『연극평론』 81, 2016 여름호, 39~43면.
- 김상훈, 「심청가 ‘범피중류’ 대목의 형성과 갈래 간 교섭 및 작품변모사적 의미」, 『관소리연구』 36, 관소리학회, 2013, 267~297면.
- 김석배, 「심청가의 ‘범피중류(泛彼中流)’ 연구」, 『문화와 융합』 14, 문학과언어연구회, 1993, 141~159면.
- _____, 「<수궁가>의 ‘범피중류’ 연구」, 『문학과 언어』 15, 문학과언어연구회, 1994, 1~22면.
- 김유미, 「관소리 ‘심청가’의 현대적 계승에 대한 일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1~72면.
- 김태림, 「관소리계 소설 서사 활용 연구—<방자전>과 <마담 뽕덕>을 중심으로」, 『고봉논집』 67,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1, 33~65면.
- 김태웅, 「<심청전>의 현대적 변용을 통한 고전문학교육 연구」, 『문화와융합』 44-4,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405~422면.
- 김현철, 「관소리 <심청가>의 패로디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11, 한국극예술학회, 2000, 293~348면.
- 남정희, 「윤대녕 소설과 신화적 상상력」, 『우리문학연구』 16, 우리문학회, 2003, 323~340면.
- 박숙자, 「여성의 몸을 탐하는 남성의 서사: 황석영의 『심청』과 김영하의 『검은꽃』」, 『여성과사회』 16, 한국여성연구소, 2005, 216~235면.
- 박일용, 「심청가 ‘강상 풍경’ 대목의 변이 양상과 그 의미」, 『국문학연구』 2, 국문학회, 1998, 9~56면.
- 박혜령, 「<심청전> 소재 현대 희곡考」, 『외대논총』 18, 부산외국어대학교, 1998, 345~363면.
- 백두산, 「후계의 불안과 자기희생의 문제: 연극 <심청>에 나타나는 이강백의 것과 이수인의 것」, 『공연과이론』 2017년 봄호, 229~236면.
- 사진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의 구조와 의미—패로디 구조와 ‘희생양’의 의미—」, 『한국극예술연구』 4, 한국극예술학회, 1995, 147~171면.
- 신선희, 「<심청전>의 현대적 수용과 변용」, 『고소설연구』 9, 한국고소설학회, 2000, 239~269면.
- 신호림, 「심청전에 대한 현대적 상상력과 스토리텔링 전략—영화 <마담 뽕덕>(2014)

- 을 대상으로, 『동양고전연구』 66, 동양고전학회, 2017, 303~330면.
- 심치열, 『<심청전>의 또 다른 이야기 형상화』, 『돈암어문학』 21, 돈암어문학회, 2008, 9~45면.
- 우수진, 『이강백의 <심청> 연극제작과정 연구—드라마터지 작업을 토대로—』, 『한국극예술연구』 54, 한국극예술학회, 2016, 47~80면.
- 유인순, 『채만식과 최인훈의 희곡작품에 나타난 ‘심청전’의 변용』, 『비교문학』 11, 한국비교문학회, 1986, 107~138면.
- 유정숙, 『최인훈의 희곡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연구: 여성성의 재현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27, 우리어문학회, 2006, 445~470면.
- 윤종선, 『<심청전>의 현대적 수용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193면.
- 장혜진, 『<심청전>을 변용한 현대희곡 연구』, 『한국연극학』 7, 한국연극학회, 1995, 135~162면.
- 진기화, 『고전문학콘텐츠의 새로운 흐름—SF를 통한 고전서사 다시쓰기』, 『한국학논집』 92,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3, 139~168면.
- 정출현, 『근대전환기, 고전서사 전통의 이월과 갱신: 채만식의 『심청전』 개작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6, 민족문학사학회, 2018, 11~40면.
- 정호웅, 『비범한 상상력으로 그려 낸 백색의 미학』, 『문학사상』 1996년 6월호, 72~77면.
- 채명식, 『윤대녕의 <친지간> 분석—그날 그 여자를 따라간 문상 복장 남자의 식연치 않은 변명에 대하여』, 『한국문학연구』 22,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0, 287~304면.
- 최어진, 『<심청가> 결말부 변이와 주제의 다층적 지향』, 『판소리연구』 54, 판소리학회, 2022, , 233~275면.
- _____, 『‘뽕덕어미’ 인물 형상의 재해석과 계승』, 『고소설연구』 56, 한국고소설학회, 2023, 95~129면.
- 최영자, 『윤대녕 소설에 나타난 환영적 메커니즘』, 『현대문학의 연구』 44,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425~257면.
- 홍재범, 『채만식 소설과 희곡의 교섭 양상: <심봉사>의 경우』, 『한국현대문학연구』 62, 한국현대문학회, 2020, 271~297면.
- 황혜진, 『전승사의 관점에서 본 <심봉사>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235~276면.

Contemporary Reinterpretation of *Simcheongjeon*

CHOE OCHIN

Focusing on Yoon Daenyong's novel *Choenjigan*(1997) and Lee Kangbaek's play *Simcheong*(2016), this study reviews the reinterpretation of the classical novel *Simcheongjeon* and highlights some common problems in the history of such reinterpretation.

In *Choenjigan* and *Simcheong*, none of the major characters from the classical novel *Simcheongjeon* appear; however, their relationship with the original work is strongly implied by various settings and motifs. What these two works have in common is that they depict the “Simcheong” female character in an overly passive and immature manner. By contrast, the male character appears as a savior helping female characters to be reborn or realize the truth of the world. The fact that the more passive the female characters become, the more their sexuality becomes the subject of attention is more problematic. This male-centered and one-sided gaze toward Simcheong is confirmed not only in these two works, but also in Choi Inhoon's play *Moon, Moon, Bright Moon*(1978), Hwang Seokyoung's novel *Simcheong*(2007), and Lim Pil-seong's film *Madame Blangdeok*(2014). Various reinterpretations of *Simcheongjeon* have been attempted to date; however, in some ways, they show a consistent trend. These perspectives toward *Simcheongjeon* and Simcheong can lead to misrea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he original work.

Keywords : *Simcheongjeon*, *Choenjigan*, *Simcheong*, reinterpretation, contemporary contents

접수일자: 2024. 3. 31.
 심사기간: 2024. 4. 1.~2024. 5. 10.
 게재결정: 2024. 5. 10.